

시위 주도단체 “정부와 협상 않겠다”

이집트 정부-아랍 단체 개헌위 설립 합의
野 청년단체와 입장차...시위 계속여부 주목

30년 비상계엄 폐지키로

이집트 정부와 아랍 단체들이 6일(현지시간) 대화를 갖고 개헌위원회 구성 등에 합의했으나 시위 주도 단체들은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협상 거부 방침을 뚜렷이 했다.

이처럼 아랍 내에서 협상 참여 여부를 놓고 입장차가 드러나기 시작함에 따라 대규모 시위의 계속 여부 등이 주목된다.

‘4·6 청년운동’ 등 이번 반정부 시위를 주도한 청년 단체들은 이날 연합체 ‘청년의 분노 혁명 통일 지도부’를 구성하고 무바라크 대통령이 물러날 때까지 카이로 타흐리르 광장 점거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연합체 지도부 중 한 명인 칼레드 압둘-하미드는 이날 정부와 아랍 간 회의는 자신들과 무관하며 “무바라크가 하야하기 전에는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자신들의 최대 요구인 무바라크 퇴진을 수용할 때까지 밀어붙이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의회 해산, 개헌 및 권력 이양 관리 과도정부 구성, 비상계엄법 폐지, 시위 관련 구속자 석방, 최근 폭력 사태 진상규명 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했다.

이 연합체에는 4·6 청년운동 외에

도 ‘정의와 자유 그룹’, ‘문 두드리기 운동’, ‘엘바라데이를 지지하는 대중 운동’, 무슬림형제단, 민주전선당 대표자들이 참가했다.

야당 지도자인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도 이날 오전 방송된 미국 NBC TV의 ‘미트 프레스(Meet the Press)’와의 회견에서 이번 협상은 자신과 무관하며 무바라크의 즉각 퇴진 이전에는 대화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부와의 협상에 참석한 아랍 최대 단체 무슬림형제단은 수일 안에 2차 회의가 있을 것이라며 시위 주도 청년 단체 등과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다만 무슬림형제단은 이번 회의가 대화의 첫 단계일 뿐으로 자신들의 핵심 요구는 여전히 무바라크 즉각 퇴진이며 정부가 요구사항에서 진전을 보일 때만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슬림형제단의 주요 인사인 예사엘-에리안은 무바라크 대통령이 100만명 규모의 강력한 시위 앞에 버티지 못하고 “이번 주말이면 더는 고집을 부리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아랍 내에서의 의견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가운데 이번 협상을 통해 현 정권이 무슬림형제단 등 일부 반대 집단들만을 만족하게 할 만



전차바퀴 아래 휴식

6일(현지 시간) 이집트 카이로 소재 타흐리르 광장에서 반정부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이 전차 바퀴 아래에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클램 양보함으로써 반정부 운동 내부의 분열을 치밀하게 시도하고 있다는 우려도 일부 아랍 인사 등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과거 무슬림형제단 소속이었던 아부엘 엘라 마디는 “정권이 무슬림형제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아랍을) 조카내는 효과를 낼 것”이라며 “시위대 중 상당수가 무슬림형제단 소속이므로 그들의 대화 참여는 혁명의 완성을 막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이날 오마르 술레이만 부통령 등 이집트 정부와 아랍 단체들은 반정부 시위사태 이후 처음으로 정식 회의

를 열고 개헌위원회 구성에 합의하는 등 정치 개혁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현지 국영TV 등이 전했다.

술레이만 부통령은 이번 협상을 통해 개헌위원회를 구성, 내달 첫째 주까지 개헌안을 마련하고 발표된 지 30년 된 비상계엄법도 폐지하며, 시위 참가자에게 보복하지 않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등 개혁 조치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의 향방을 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집트 군도 고위급 인사들이 나서 타흐리르 광장의 시위대와 직접 접촉해 해산 및 생업 복귀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석선장 몸속 아군 탄환 1발...아라이 수사 변수

■ 해경 최중 수사결과

표적수사·배후세력 '검찰' 뒷
현지 분실탄환 실제규명 주목



김중규 특별수사본부장이 7일 오전 남해해경청에서 종합수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말리아 해적의 삼호주얼리호 피랍사건을 수사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해적 5명에 대해 선박강탈, 해상강도 및 인질강도살인 미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모두 입증했다고 7일 밝혔다.

수사본부는 지난달 30일 마호메드 아라이(23) 등 해적 5명의 구속이후 1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날 오전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8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납치 공모·선박 강취·몸값 요구 = 청해부대 최영함에 생포된 5명을 포함한 해적 13명(8명은 사살됨)을 소말리아 북부 푼틀랜드 지방 출신으로 지난해 12월 중순께 선박 납치를 목적으로 결성, 해적행위를 공모했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오전 7시 30분께 인도양 북부 아라비아해 입구 공해상에서 해적 5명은 대진차 로켓포 등 각종 살상무기를 소지한 채 고속단정을 타고 삼호주얼리호에 접근했다. 이어 갈고리자 달린 로크와 사다리를 이용, 삼호주얼리호에 올라 선박을 납치했다.

나머지 해적 8명은 2차로 승선, 선미 로프창고에 숨어 있던 선원들을 무기로 위협, 조타실과 선실 등지에 압박했다. 해적들은 500억원 상당인 삼호주얼리호와 선박에 실려있던 시가 70억원 상당의 화물, 선원들의 현금과 귀중품 등 2750만원어치를 빼앗았다.

△구출작전대 총격 대응·선장 총격 = 해적들은 청해부대가 구출작전을 인가한 조타실 옆 외곽에 선원들을 인간 방패로 세웠다. 이들은 갖고 있던 살상용 무기로 청해부대 장병 3명에게 조준사격을 하는 등 살해하려 했다.

구출작전이 시작되자 마호메드 아

라이(23)가 조타실 바닥에 엎드렸던 석 선장에게 휴대하고 있던 총을 발사했다. 수사본부는 한국인 선원들의 일관된 진술과 석 선장의 몸에서 나온 AK 소총 탄환, 조타실 바닥의 총탄흔적 등을 근거로 아라이가 석 선장에게 총을 쏜 혐의를 입증했다.

△표적납치·배후세력 수사 과제로 남아 = 수사본부는 해적들을 상대로 지난해 아라이가 해적에 피랍된 금미 305호 등 이전 우리 선박 피랍사건들과 이번에 생포된 해적과의 관련성 여부를 조사했지만 성과를 얻지 못했다.

표적납치 여부도 조사했지만 관련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표적납치와 배후세력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뒷으로 넘어갔다.

△'분실' 탄환 1발, 아라이 수사에 변수 작용 가능성 = 석 선장의 몸에서 나온 탄환 4발 가운데 1발이 우리 해군이 쏜 오발탄으로 밝혀지면서 오만 현지에서 잃어버린 탄환 1발에 대한 실체 규명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오만 현지에 분실한 탄환 1발의 행방과 탄환 종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탄환이 만일 우리 해군이 쏜 탄환으로 드러날 경우 해적이 쏜 총탄은 1발에 그쳐 총격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마호메드 아라이에 대한 수사에도 변수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오늘 오전 10시 남북 실무회담”

南 대표 문상균 대령...北은 리선권 대좌

국방부가 8일 오전 10시 관문점 우리측 '평화의 집'에서 남북 군사실무(예비)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진석 국방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실무회담에서 북측은 리선권 대좌(대령급)와 2명이 참석하고 우리측은 문상균 대령(국방부 북한정책과장)과 2명이 참석한다”고 말했다.

이번 실무회담에서 양측은 고위급 군사회담의 의제와 급, 일정 등을 논의하게 된다.

김 대변인은 “이번에 공동 취재단은 구성하지 않고 기록 요원으로 근무하며 2명만 참석한다”며 “회담이 끝난 회담결과를 설명하거나 보도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9월30일 관문점에서 대령급 남북 군사실무회담이 열릴 때는 공동 취재단의 취재를 허용한 바 있어 실무회담의 언론공개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2010년쌀 변동직불금 1만5588원

농식품부는 “2010년 쌀 변동직접지불금을 80kg당 1만5588원, 1ha당 95만868원으로 정했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2010년산 수확기 평균 쌀값이 80kg당 13만8231원으로 조사됨에 따라 변동직불금을 1만5588원으로 정했다”면서 “지급대상자는 78만1000명, 지급면적은 78만9000ha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변동직불금(80kg)은 ‘쌀 목표가격(17만83원)-쌀값(13만8231원)×88%-고정 직불금(1만1486원)으로 정해진다. /연합뉴스

농식품부는 “2010년도 쌀 생산 농업인의 80kg당 수입은 평균 쌀값 13만8231원과 고정직불금 1만1486원, 변동직불금 1만5588원을 합한 16만5305원으로, 목표가격(17만83원) 대비 97.2%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10년산 쌀직불금(고정+변동)은 지난해(2만3564원)보다 3510원이 늘어난 2만7474원으로 집계됐다.

2010년산 변동직불금은 대상 농가별 지급액 확정, 시도의 신청을 거쳐 오는 3월 농업인에게 지급된다. /연합뉴스

北 주민 31명 연평도 인근 월남 귀순 의사 없어...조업중 표류한 듯

지난 5일 오전 11시께 북한 주민 31명이 어선을 타고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통해 남쪽으로 넘어왔다.

합참 관계자는 7일 “지난 5일 오전 11시께 31명이 탄 어선(5t 동력선) 1척이 연평도 북방에서 NLL 쪽으로 남하하는 것을 포착했다”며 “해군 고속순대출동해 NLL 남방 1.6마일 지점에서 검문검색한 뒤 예인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 주민들은 현재 관계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 “아직 귀순의사를 밝힌 주민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 소식통은 이와 관련, “황해도 남포에서 출발한 것으로 추정

되는 북한의 고기잡이 어선이 연평도로 넘어와 군 당국이 인적으로 곧바로 예인 조치했다”며 “어선에는 남자 11명, 여자 20명이 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해상은 시정 91m로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고 조류 흐름이 매우 빠른 곳이었으며 주민을 태운 어선은 갯벌에 걸려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군은 검문검색 요원을 태운 고속단정(RIB)을 어선으로 접근시켜 승선토록 한 뒤 1차적으로 남하 경위와 귀순 의사 여부를 확인했다. 어선에는 고기잡이용 어구가 식별되어 조업 중 표류한 것으로 당국은 추정하는 것으로



북 주민 31명 탐승 어선 남하

전해졌다.

그러나 정보 당국은 이번 북한 주민의 집단 월남이 자발적인 탈북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북한 주민의 대규모 월남은 2002년 8월19일 21명이 어선을 타고 서해로 귀순한 데 이어 2009년 10월 11명이 전마선을 타고 동해로 귀순한 이후 처음이다. /연합뉴스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에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염(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코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장상이나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 가 매우 중요하다. 근본적인 치료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두가 가렵거나 냄새를 잘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근질거리면서 많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를 발작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각해진 것이며 결국 축농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중세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 두통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근피동 20여 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콧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뚫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환용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 년간 비염을 중점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살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가와 호흡기가 튼튼해지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한의원 한약은 작은 환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원에서 치료하는 알약은 주재료인 참스름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는 참스름나무 뿌리 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원의 이환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과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회 제090204-중-4738호

전복구이

전복스팀찜

전복문어찜

전복구이 전문점 전복장터

전복장터를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정해역 완도바다에서 직영 양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싱싱한 전복을 고객님께 올릴 수 있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의 한분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 양식장 직영 도·소매
- | 할전복 전국택배 가능 합니다.
- | 모든 메뉴 포장 됩니다.
- | 각종모임 환영, 룸 9실, 대형주차장 완비

전복장터 | 예약문의 062-576-86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